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유현영 사도요한, 이지원 사비나

다음주 독서: 김주현 안토니오, 이연주 안젤라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강선우 마르가리타

다음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번주 미사해설: 최미라 베아트리카, 조은경 수산나

다음주 미사해설: 조은경 수산나, 김보미 로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황지혜 레지나

회 계: 김주형 엠마누엘, 김지영 알로이시아

친교실 정리: 제 1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 231

교무금: \$ -

합 계: \$ 231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 분부터 미사 전 까지.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성가대장: 석우경 안드레아, 고미현 다미아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7시 사제관

토요 교리모임

격주 토요일 4시 성당 지하 친교실

성모회 금요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장소는 성당 게시판 참조)

(복음 이어서)

지키는 이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나 자신을 드러내 보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의 묵상

어느 인권 변호사가 TV 프로그램에서 강연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사법 고시에 합격하면 현수막을 걸고 축하를 해 주는데, 사실은 현수막에 ‘근조’(謹弔)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죽음처럼 어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무죄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변론을 할 때 의뢰인과 똑같이 억울하고 손이 벌벌 떨리는 심정이 되어야만이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변호하는 한 양심 있는 변호사의 마음이 이렇진대, 우리의 변호자이신 성령께서는 더할 나위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말로 다할 수 없이 탄식하시며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로마 8,26 참조). 우리의 나약함과 억울함을, 우리의 슬픔과 고통을, 인간 존재가 겪는 모든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같은 처지와 심정이 되시어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변호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양심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세상을 숨 쉬게 합니다. 우리 내면의 영적 세계에서는 우리의 처지를 다 아시는 성령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숨 쉬며 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답답하고 사는 것이 힘들 때 우리를 고아로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하신 오늘 주님 말씀을 기억하면, 성령께서 우리 곁에 오시어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디슨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심윤필 베르나르도 (512) 698-6379

<http://club.catholic.or.kr/thekccm>

[부활 제 6 주일(생명의 날)]

2011년 5월 29일

<제 1 독서> 사도행전, 8, 5-8, 14-17

<제 2 독서> 베드로 1 서, 3, 15-18

화답송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또는 ◎ 알렐루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나이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룬 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다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시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도 그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서 그와 함께 살리라.

◎ 알렐루야.

요한복음, 14, 15-21

복 음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께서는 다른 보호자를 너희에게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도록 하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분을 알고 있다.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머무르시고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로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받아
(옆면에 이어서)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청하면, 아버지는 다른 보호자를 보내시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시리라.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시작: 414 봉헌: 332 성체: 503 파견: 236



생명의 말씀

내 안에 너 있다

언젠가 텔레비전 인기 드라마에서 나온 “내 안에 너 있다”라는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내 안에 너 있다”라고 고백함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표현한 이 말이 연인들에게 한때 유행이었지요.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이미 하나임을 뜻하는 이 말을 듣는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크신 사랑을 고백하고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나누시는 사랑의 일치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지요. 사랑이신 성삼위 안에 우리를 같은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늘 당신 마음에 우리를 품고 계시는 그분은 결코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늘 나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시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지요. 그분이 이렇듯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니 내가 남몰래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따라 심판하시겠구나 생각하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곰곰이 묵상해보면 하느님께서 그만큼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이해하시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자비로이 받아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며 소외시킬 때 대부분의 경우 상대방에 대해서 어설픈게 알거나 잘 모르고 그러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이기에 오히려 우리를 변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버려짐과 소외의 두려움 속에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생명을 등지는 상황에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에게 큰 희망과 위로를 줍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여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이르렀을 때 사도 바오로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갈라 2,20).

우리는 그분의 깊은 사랑에 한없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 또한 주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한다면 성부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일치의 기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랑을 실천한다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은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런 일치적 사랑입니다. 너와 내가 따로 있지 않고 완전히 하나로 존재하는 삼위일체적 사랑!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뜨거운 사랑!

오늘 그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청해봅니다.

안성철 마조리노 신부

† 공지사항

- 성당 부엌을 사용하려면 St. Paul 에서 메일함에 넣어서 관리하는 열쇠를 사용해야 합니다. 부엌을 사용해야 할 때 미리 사목위원들이나 성모회장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미사 후 공동체 식사는 2 구역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2 구역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소통의 달인은 누구일까요?

“이번 해외연수 때는 우리나라의 발전상을 널리 알려서 국가브랜드를 높이는 데도 일조하겠습니다.” 지난해 해외연수를 나가는 공무원들이 나에게 한 말이다. 우리나라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눈부신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유일한 나라로 이제 많은 후발국들의 발전모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많은 외국 공무원들이 우리 교육원에 와서 우리나라의 발전정책을 학습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발전상을 보고 현대사의 기적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긍심을 가질만한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해외에 나가는 연수생 대표들에게 이런 말을 해 주었다. “우리의 성공담은 밖에 나가서 말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자랑하면 공연히 경쟁심과 시기심만 불러오기 쉽습니다.” 나는 자랑 대신 현지 봉사활동을 하는 걸 제안하였다. 특히 6.25 참전국가에 가는 공무원들에게는 마침 전쟁 60 주년이 되는 해이니 꼭 그 나라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감사파티를 하도록 당부하였다. 다른 나라로 나간 교육생들에게도 우리나라의 발전상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들의 노력만으로 이룩한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꼭 설명해 주라고 당부하였다. 사람은 존경심, 동정심, 협동심이 있는가 하면 시기심, 질투심, 증오심도 있다. 누군가 지나치게 잘 나가면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키기 쉽다. 재물이 늘어나면 나누어 주길 바라고 똑똑해지면 겸손해지길 바란다. 이런 바람을 외면하면 대부분 갈등과 마찰이 일어나게 된다. 해외 연수를 나간 교육생들은 정말 겸손한 태도로 현지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참전용사들을 모셔서 친부모처럼 따뜻하게 위로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귀국 후에 이들이 전한 말이다. “이번 교육처럼 감동을 느낀 것은 처음입니다. 그분들이 모두 친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외국인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도와드리니 정말 마음을 활짝 여는 걸 느꼈습니다.” 요즘은 홍보와 마케팅의 시대라고도 한다. 기업홍보, 제품홍보, 지자체홍보, 국정홍보라는 용어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런 홍보를 접해보면 대부분 자랑이 많다. 우리 회사 자랑, 우리 고장 자랑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꼭 호감을 느끼는 건 아니다. 자랑이 지나치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기도 한다. 이태석 신부님은 자랑을 하신 적이 없다. 그 크신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도 자랑하신 적이 없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을 하실 때도 자랑은 없으셨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마음을 열고 경청하였고 공감하였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홍보마케팅 전쟁시대에 진정한 홍보는 무엇일까? 머리와 머리가 만나면 두통이,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소통이 되는 건 아닐까! 자랑하면 두통을 일으키고 혼자만 잘 나가면 복통을 일으키는 건 아닐까! 나는 소통 이야기만 나오면 이태석신부님의 해맑은 얼굴이 떠오른다.

윤은기 스테파노 중앙공무원교육위원장